

지역 소식통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7000만원 고지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000여 건에 71억 7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 28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택은 전년대비 1억 100만원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대비 2억 2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건축물 시가포함 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36% 감소했고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해 지난해보다 부과세액이 줄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기준비율 역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각 1/2씩 부과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승강기 간힘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정읍시는 11일 연지아트홀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정읍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앞서 승강기 사고사례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사고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예기치 않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승강기 간힘 상황을 가정한 기관별 대처 능력 배양과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승강기에 승객이 감한 후 △승객과 승강기 관리주체의 비상 통화 및 구조요령 △관리주체의 관찰 소방서 출동·구조요령 △구조대 도착 후 119 구조대원의 긴급 구조 등 구조 단계별 대처 방법 순으로 이뤄졌다.

/정읍=김대환기자

“활력 넘치는 고창 위해 힘쓸 것”

노형수 고창부군수, 터미널 도시재생 등 각종 도시 개발사업 쟁기기 ‘눈길’



“생각보다 아주 비쌉니다. 금세 1년이 지났네요.”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오는 1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노 부군수는 민선 8기 첫 부군수로 부임하자마자 국가 공모사업 발굴과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례’를 행기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노 부군수는 취임 초부터 활력 넘치는 고장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과 재정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청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법사사업 선정’을 지원했다. 군 단위에선 시도조차 못했던 공모사업이고 다른 도시도 1년 넘게

준비했던 것을 특유의 과감한 결단으로 단 3개월 만에 성공시켰다.

노 부군수는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의 경우 심덕섭 군수님의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 함께 이루어낸 기적이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비롯해 행정절차를 행기며 속도감 있는 사업을 독려해 가겠

다”고 밝혔다.

노 부군수는 민선 8기 고창군 부군수의 역할로 ‘조정, 중재, 플레이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술분야가 전공이고 종합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 업무 경험을 토대로 대형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각별히 행기고 있다.

특히 ‘풍수해 정비사업’, ‘명사습지 해변길 연안정비 사업’, ‘고창읍성 외곽 숲가꾸기 사업’,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고창방문의례 도시디자인’ 등에 노 부군수의 애정이 물씬나고 있다.

그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발전·군민 복리 증진 방안 제시

군의회,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진행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300회 임시회 둘째 날인 6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12일까지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임정호 의장은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시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을 짚어주시고 협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창군의회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상반기에 진행된 군정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련 주요 발언 사항이다.

먼저 임정호 의장은 주민자치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정리와 함께 농번기 기간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신 의원은 디문화가족나들이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가족에 비해 선정된 가족이 적다면 더 많은 결혼이주민 가족이 모국 방문과 국내여행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다.

조규철 의원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와 관련, 현재 농생명과학과 입학자원 부족으로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역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의 유지를 위해 농생명과학과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학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차남준 의원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생생카드를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

는데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75세 이상 여성농업인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상한 연령의 상향을 검토 주문했다.

조규민 의원은 인재양성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학 진로·진학 상담기회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진로 전문가 영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원은 지방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수의 고창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과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임종호 의원은 신호부부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신호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을 5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내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오세환 의원은 지역사회상품권과 관련하여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일부 면 지역에서는 하니파크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섍 의원은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하여 전통 판소리는 그 자체로 좋지만 실용음악과 접목된 퓨전 판소리는 새로운 재미와 흥을 주고 있다며 이들에게 전통 판소리 교육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퓨전 판소리 교육방안을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추진상황 보고를 단순히 군정 전반에 대해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민생을 보듬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민본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국원전동맹 대전·전라권 단체장 회의 개최

부안군, 행정협의회 출범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논의



부안군은 11일 오후 2시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동맹 대전·전라권 단체장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동맹(약칭·원전동맹) 김영길 회장(울산 중구청장), 권의현 부회장(전북 부안군수)을 비롯한 유성구, 고창군, 무안군, 장성군 등 7개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은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출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100% 달성을 등이다.

2019년 첫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인접과 불협화면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이며, 올해 부산의 7개 기초자체가 합류하여 23개 자치체, 503만 명 원전 인근 지역 자치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그동안 지자체들간

자율적으로 모여 방사성폐기물계획구역 주민보호와 비합리적인 현행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였으나, 원활한 사무추진과 공신력을 갖추고자 행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따른 고위험군 특별보호대책 추진

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정읍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 접촉회의를 진행하고, 고위험군 특별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입소형(주야간 보호센터 포함) 김영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80세 이상 고위험군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만큼 방역수칙

점검과 접촉 홍보 등 고위험군 보호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시티투어 운영

정읍시는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로 구성된 정읍 시티투어를 7월 15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티투어는 ‘정기투어’와 ‘특별투어’로 나뉘어 진행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동행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정읍역 앞에서 출발하는 정기투어는 정읍의 자랑이자 사계절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장산과 세계 유산인 무성사원,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조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전국

유일의 정읍쌍화치거리 등 시내투어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요일에 관계 없이 20인 이상이 신청 가능한 특별투어는 시내투어, 동학농민혁명 탐방 코스, 태산선비문화 코스, 정읍 구절초지방정원 코스 등 다양한 테마로 방문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가이드) 또는 관광과(063-539-5232)에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